

주혜인

2009. 10. 30 금요일 오전 3시 40분

<회개에 대한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 복음 역사, 사도 시대처럼

내가 창대히 펼 것이다.

너의 눈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가늠치 못하지.

내가 진정 함께 하면 이룰 수 있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통해 이 시간

하고픈 말을 지금 적으라.

이 시대 복음 역사 펴기 위해,

먼저 너희가 할 것 있다.

온전한 회개다.

내 사랑하는 섬리사 신부들아.

너희가 그간 회개해 왔다하나,

아직 온전치가 앎구나.

회개 이제 그만 해도 될 것 같다는 자들,

그 소리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청소가 안 된 곳이 있으면

계속 지적을 받는 것이니,
깨끗한 곳도 있지만,
아직도 더러운 곳이 있노라.

너희 모든 지도자, 가르치는 자들아.
너희에게 더욱 내가 하고픈 말이 있노라.
너희가 너희 회개의 본을 보이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온전히 너희 육신 내가 쓸 수 있다.
오. 내가 역사하면 금방 이길 수 있건만,
내 성령 그토록 물 붓듯 부어주었으나,
어찌 너희가 변화되지 않고,
그 삶이 하늘 아버지 원대로 쓰여 지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온전히 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
내가 그래서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
오, 제발 이제는 그 때가 남지 않은 지금은,
너희가 마지막 너희 마음 그릇 비워야 할 때다.
이제 그것 하지 않으면 늦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산에 오르는 시간과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하듯,
이제 회개치 않고 언제 저 산 넘어 내려오려느냐.

이젠 정말 시간이 없구나.
저 생명역사, 너희 섭리의 운명 달려 있건만,
그것이 스승의 일로만 생각하느냐.
그의 노정 너희도 간다.
환란 핍박 너희에게도 해일처럼 몰려온다.
오, 무지한 자여.
너희가 피할 길이 없노라.
이제 진정 마지막 나의 말 들으라.
온전히 가장 먼저 선자가 회개의 본을 보이라.
그로 인해 나의 성령의 역사 폭발하리라.
내가 쓰는 그 자로 인해
작은 돌로 연못이 온통 진동하듯,
그 역사 일어난다.
마음 비우고, 심령 비우고,
이제 그 죄짐 다 없애야,
내가 너희와 일체되어 성령의 역사 이룬다.
오. 나는 안타깝구나.
눈물이 흐르는 새벽이로구나
밤이로구나.
나를 위로할 자 있나 찾아 왔지만
이 자 통해 외치지만,
내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그것을 이루어야만,

내 소원 이뤄지고 너희 소원 이뤄지며
능히 너희 생명까지 살린다.

오, 마음이 어리고,
그 눈이 먼 자들이여. 보이지 않지?
너희로 정녕 보이지 않지,
나는 보이노라.
너희의 미래가 보이노라.

오. 민족들아. 일어나라.
지금이나와 하나 될 때다.
너희 마지막 힘을 내어 내가 싸울 테니
너희 이제 모두 회개의 마지막 역사를 이뤄내라.
오. 거기에 내 역사의 열쇠가 있다.

내가 말한다.
온전한 회개다.
너희 온전히 변화 되지 못한 몸으로 일어나면,
마치 시체가 썩어가는 몸으로 일어난 것 같아서
내가 너희 맞을 수가 없다.
온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변화 되어라.
썩고 버릴 너희 육의 것은 다 버리라.
버리라.

생명의 몸으로 거듭나라.
왜 미련을 가지고 붙잡고 있느냐.
오, 너희 움켜잡은 손들로,
너희 생명의 부활이 더디어 지는 구나.
내 마음 타들어 간다.
내 마음 안타깝구나.

내 사랑아.
이제 섭리사여,
정말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빨리 마지막 회개 할 때다.
이제 다시는 회개 얘기 나오지 않도록
온전한 회개의 불길,
마지막 불길로
모든 섭리사,
세계 만방 태워 나가라.
내 사랑의 불로,
능히 모든 남은 죄 깡그리 태울지니.
나의 남은 이 죄악들 너무나 지긋지긋하구나.
너무나 싫구나.
너희가 그것 끌어안고 자는 모습,
정말 몸서리 쳐진다.
내 신부들,

너희는 모르지? 정녕 모르지.

오. 이 밤,

나의 십자가 진 고통 다시 떠올리며

이 지구촌 죄 때문에

오늘도 내 십자가,

이제 너희 스승,

내 사랑하는 자까지 지게하고

가슴 아픈 내 마음, 너희 아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와 함께 한 죄악

나는 너무 싫구나.

한 점도 남기지 말고

이번엔 기필코 다 태우고 없애자.

내 사랑 신부들아.

이제 내가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련다.

나의 무장한 모습 보아라.

저 사탄 마귀 나의 창과 칼에 나가떨어진다.

내 그림자만 보아도 무서워 떠는 구나.

이제 너희가 나의 육의 군대 되어야 하니,

이제 잠깨어 온전한 회개로 준비하자.

결전의 날 왔다.

내 신부여 내 보좌, 하늘 보좌,

이제 거의 다 내려왔노라.

오랜 싸움 나도 이제 기다림의 끝에 와 있구나.

하늘 문 열리니,

이제 아버지의 영광 보리로다.

함께 하자,

나의 신부여.

이때를 위해 너희 예비 되었노라.

나의 2천년 싸움,

너희 마지막 종지부를 나와 찍자.

오 내 사랑하는 신부들,

신부 군대들아.

나 위해 목숨 걸고 싸워 줄 거지?

나는 너희 위해 생명 던지며 이 길 왔다.

이제 너희 나의 의의 싸움,

내 아버지의 영광의 싸움 위해

너희 목숨 던져다오.

정녕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살고자 하는 자 죽으리라.

내 신부들에게
신랑 예수가 전한다.